

사상의학의 현재와 미래

고 병 익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 21세기의 사상의학

근래 서구 자연과학 일변도의 과학기술을 근거로 한 기계문명의 흐름을 의학에 대입시켜 성립된 의학의 문제점을 한의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동양의학의 관심이 고조되고, 서구 근대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분리된 상황을 동양의 자연을 바탕으로 한 전체성원리와 전일 개념을 토대로 통합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는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중국에서 유래된 기존의학이 안고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일면을 탈피하여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실용적 임상의학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적응해가는 한의학의 개척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상의학의 특징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상의학의 특징

1) 품수의학(稟受醫學)

품수(稟受)라 함은 체질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므로 부모와 조상의 특징을 생김새와 성품에서 질병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받는다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이러한 점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사람마다 혈액형이 부모와 자식간에 일정한 규율에 따라 전해져 내려감을 알 수 있고, 부모가 혈압이 높거나 중풍을 앓는 사람들은 자식도 그러한 경우가 많고, 소화기능이 약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 발병빈도가 높으며 색맹이나 혈우병 또는 정신질환에 있어서 자손에게 그 영향이 전해지는 유전적 소인이 있음이 밝혀진 것을 볼 때 이러한

품수에 대한 내용은 의학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심신의학(心身醫學)

이제까지의 의학은 주로 우리의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환자의 몸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이 없고 몸만 있다면 다른 무생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은 육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병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체질형성에 있어서도 깊게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요

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도 20C에 이르러 이와 유사한 이론이 태동되어 근래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를 전혀 접할 수 없었던 19C말에 이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몸과 마음이 동일한 비중을 지니면서 서로 가역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이제마의 혜지(慧智)가 참으로 뛰어났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체질의학(體質醫學)

이는 주로 치료면에 있어서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체질적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한 병이라 하여도 치료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체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임상에서 많은 의사들이 실제 경험하는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질병에 응용할 수 있는 A 라는 약과 B 라는 약이 있을 때 A 라는 약을 투여하여 낫는 환자가 있느냐하면, A 약이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B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접하게 되고 또는 A 나 B 가 아닌 C 라는 약으로만 효과를 보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이유로 약의 작

용기전의 차이 혹은 이를 받아들이는 인체의 개체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제마는 바로 이러한 점이 체질이 다른데서 유래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약 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학에서 많이 거론되는 알레르기 현상도 이러한 체질적 소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의학(社會醫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편하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체질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람을 접할 때에는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만큼 대인관계도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직장이나 업무의 특성도 내 자신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직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할 경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양에서 MBTI와 같은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서에 맞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의보수세보원·광제설(廣濟設)』에 ‘天下之多病은 妬賢嫉能이오 天下之大藥은 好賢藥善’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병은 남의 현명함을 질투하고 능력이 있음을 시기하는 것이고 이 병에 쓸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명약은 남의 현명함을 사랑하고 선한 행동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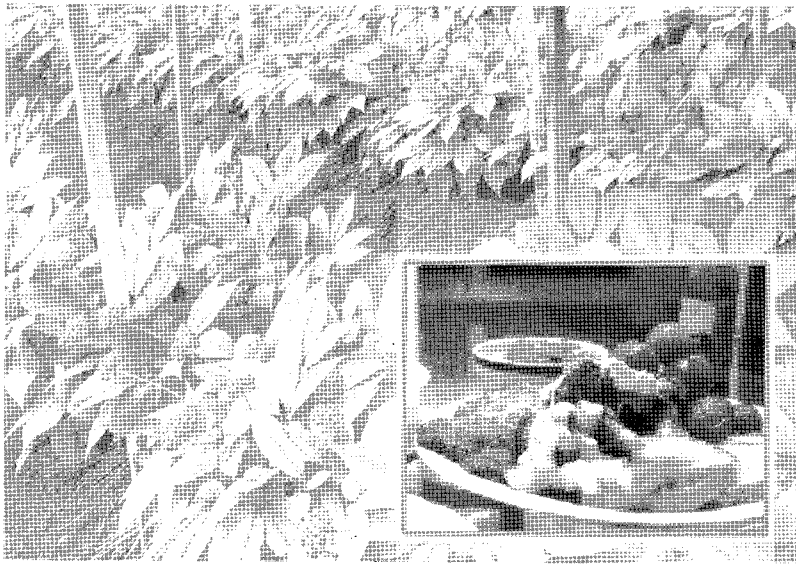
3. 사상의학의 당면과제

1) 진단의 객관화

근래 사상의학분야에서 자기보고형 설문지(QSCCI), 체형검사, 안면형상계측, 성문(聲紋), 지문(指紋), 맥진(脈診), 음식물이나 약물의 반응조사 등을 임상에서 응용하고 있어 종전의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방법을 탈피하여 객관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변증진단의 객관화는 물론 양도락과 생기능진단이나 맥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더 객관적이고 실용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동양철학 및 의학과와의 상관성 연구

일반적으로 한의학이 도가(道家)적인 황노학(黃老學)의 경향을 띠



연구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한의학의 발전은 학제간 연구와 병행할 때 의학이나 약학 뿐만 아니라 생화학, 생명공학, 식품, 농학, 나아가서는 윤리나 철학분야 까지도 창의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향후전망

1) 사람이 주인되는 의학의 길

자연과학이 인간의 기계화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면 한의학 특히 사상의학은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자연과학의 물질적 사고는 경제원리와 만나면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발로하는 쪽으로 치닫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회와 개인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식 위에서 스스로를 책임있게 관리해가는 의학이론으로 미래의학의 건전한 모델로서 의미를 발휘할 것이다.

☆ 예방의학? 국민보건정책에 반영

이제마는『동의보수세보원·광제설』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늙어 운명을 다할 때까지 체질별로 건강하

고 있으나 사상의학은 경학(經學) 또는 성리학(性理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형성이 되었다. 따라서 철학적인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개념의 혼돈이 내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 이론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약 및 이를 전제로 한 실용적 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서양의학과 의 교류확대

일반적인 의학이나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 서양의 생물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이 되어있는 까닭에 한의학 또는 사상의학에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내재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4) 일반화 및 생활화

의학은 전문분야임에 틀림이 없으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 많은 병들이 생활환경이나 식생활습관과도 연관이 깊으므로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육성해나가고 지도 방법을 개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체질별 체형적 특성에 따른 의사 개발, 실내 인테리어, 체질별 건강식단, 유아 놀이지도, 청소년 학습스타일과 진로 탐색, 직장 조직 내 리더쉽과 조직 운영 등에 사상 체질 특성을 이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5) 기초학문과의 교류확대

어느 학문이나 다양한 기초 학문 위에서 성립됨을 생각할 때 특히 한의학분야는 여러 분야의 학제간

게 살아나가는 지혜를 제시했다.

모자보건, 영유아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성인병관리, 노인보건 등 평생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의학적 차원의 관리가 개개인 모두에게 중요하며, 국가 보건의로 정책에도 중요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과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자되고 있다.

사상의학의 정신을 이와 같은 예방의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국민보건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사상의학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 전 분야에 사상의학적 마인드를 접목시킨다면 미래의학의 건전한 모델이 성립될 것이다.

2) 맞춤의학

근래 Genome project의 성과가 논의되면서 개체의 특성에 따른 치료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이미 100년 전 이 땅에서 동무는 이러한 사실을 임상에서 중요시하면서 환자를 관리해야한다는 사고를 설파하였다. 체질에 따른 치료는 획일화된 기성복을 입었을 때 내 몸에 뭔가 어울리지 않은 양복을 맞춤양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니는 체질적 편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내 생활환경에

부합되는 양생 및 관리방법을 찾아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맞춤식단 ? 체질별 식단 문화 정착

☆ 맞춤치료 ? 체질별 치료

☆ 맞춤관리 ? 체질별 치료 환경, 질병관리, 건강검진

3) 건전한 사회 건설

나보다는 남을, 개인보다는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주색재권(酒色財勸)에 대한 경계,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정신, 호현낙선(好賢樂善)의 자세는 우리의 미래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고,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사회와 더불어 높여 가는데 건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 知人正己 성장프로그램 정착

태소음양인의 각가 다른 식견(識見)과 재능, 성격, 일처리방식, 대인관계 스타일, 직성이 만나서 상호간의 이해와 도모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중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의 체질을 이해 · 장단점을 파악하고, 타 체질을 이해하여 상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전

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해야한다.

사상의학은 이를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모든 각계의 노력에 사상학적 마인드가 집목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되리라 본다.

4) 전세계 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

이제마 선생은 東醫(동쪽에 위치한 한반도 의학의 독창성), 壽世(천수를 누림), 保元(원기-생명력-를 보전)의 의학정신을 전세계 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학으로 성장시켜야한다.

☆ 21세기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

21세기 새로운 생명공학 의료산업을 주도할 전통의학과 서양 의학을 연계하는 유전체 정보 기술개발을 통한 신의학 진단, 치료 기술 창출하고, 서양의학적 질환 · 사상 체질변증, 유전자 진단의 통합된 기술접근을 통한 연구, 진료, 의료 · 의약산업 분야의 시너지 창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출하며, 사상 의학을 전세계 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 하는 명실상부한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의학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㉓